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개요

교육은 무형문화유산을 대대로 전승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2003년 협약에서도 교육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은 그 성격이 정규 교육일 수도, 비정규 교육일 수도 있다.

먼저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의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이어서 정규, 비정규 교육이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관련해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핵심어 : 정규, 비정규 교육, 무형문화유산 보호

I.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의 중요성

교육은 무형문화유산을 대대로 전승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2003년 협약에서도 교육을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은 그 성격이 공식 교육일 수도 비공식 교육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2003 협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보호”라 함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진흥, 증진과 특히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전승 및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¹

협약 14조는 교육 분야 활동에서 협약 당사국들이 자국 영토 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아래에 그 전문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제14조 - 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각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해 사회 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존중 및 증진을 확고히 한다.
 - (1)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인식 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3)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 (4) 비정규적 지식 전수 수단
- 나. 유산에 위해가 되는 요소와 협약 이행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알린다.
- 다. 무형문화유산을 표현하기 위해 필히 존속되어야 할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촉진한다.²

협약 제21조는 “모든 직원에 대한 훈련”³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육 분야에

1)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 제3항.
2)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4조.
3)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1조 (c)항.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적 지원 공여를 고려할 수도 있는 활동이다.

협약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문제에서 정규, 비정규 교육이 중요한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I.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의 정의

정규 교육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⁴ 다른 말로 ‘학교 학습’이라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학교 외 학습’이라고도 하는 비정규 교육은 그러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환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⁵ 아래 유형별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어에서 번역).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대학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체계화·조직화된 학습 활동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실시되는 인문 및 일반 교양 중심 학습, 전공과목 프로그램, 직업 훈련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형식 교육은 한 개인의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으로 가정생활, 이웃과의 교류, 근로환경, 놀이, 시장, 도서관, 대중매체의 영향을 포함하는 환경적 영향과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태도,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비정규 교육은 일반적인 학교 시스템 밖에서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모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혹은 특정 교육 참가자들의 학습 목표 달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광범위한 활동의 일환이다.⁶

4) Danielle Colardyn & Jens Bjornawald, “정규·비정규·비형식 학습의 유효성: EU 회원국들의 정책 및 시행 (Validation of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policy and practices in EU Member States).” DOI: 10.1111/j.0141-8211.2004.00167.x, 2004년 3월 25일.

5) Haim Ersach, 「학교 학습과 학교 외 학습을 잇기: 정규·비정규·비형식 학습(Bridging In-School, Out-of-school Learning: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16권, 2007년 11월 2일, 171-190, DOI: 10.1007/s10956-006-9027-1.

6) <http://duniacipleks.blogspot.com/2011/02/perbedaan-pendidikan-formal-informal.html>

III. 정규, 비정규 교육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관련성

정규 교육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규 교육은 넓게는 무형문화유산 전반, 좁게는 특정한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연관된 교육 및 훈련을 단계적으로 초·중등학교나 대학 교육의 환경에 맞게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전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행해지는 정규 교육 체제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 교육은 일반적이기보다 혁신적인 것이다. 학교 교실과 대학 강의실은 무형문화유산 교육에 있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무형문화유산 종목 중 일부가 교과목으로 교육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이름의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학위 과정을 개설한 대학도 아직까지는 없다. 물론, 예컨대 한국의 일부 대학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강의 과목으로 가르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⁷

무형문화유산이 정규 교육 교과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 마련된 법적 기반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학교 교과과정에 무형문화유산을 도입하는 근거

2003년 제정된 법률 제20호⁸의 제36조 2항 및 3항 (d)는 지역별 잠재력의 다양성에 따라 교육을 다양화할 것을 명하고 있다. 동법 제37조 (j)는 공립교육 교과과정 내에 "지역 콘텐츠"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 콘텐츠"는 문화적 다양성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언어와 문화, 예술을 포함한다. 법률 제20호는 지역 문화를 해당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지역 콘텐츠"로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정규 교육

한편, 아득한 옛날부터 무형문화유산은 비형식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해 전승되어왔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삶의 일부였고, 공동체 일원들은 공동체 환경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것이 비형식 교육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비정규 교육은, 정규 교육 환경은 아닐지라

도 정규 교육체계 밖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비정규 무형문화유산 학교를 상가(sanggar)라고 부른다. 유럽의 경우에는 아틀리에(atelier, 작업장)라고 한다. 이들 공간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장인(maestro)이나 최고 기능보유자(master practitioner)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인 수업, 교과과정, 시험이나 다양한 숙련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생들은 이론수업보다는 주로 '실습을 통해' 실력을 쌓는다. 상가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장인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는 대부분 평생 동안 이어진다. 필자도 한 상가에서 2004년 스승이 사망할 때까지 8년간 와양(wayang)을 공부하였다.⁹ 이와 같은 비정규적 교육을 위한 장소가 한국에도 존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능을 전수하는 장인들은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¹⁰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이 향후 유산의 전승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래에서 몇 가지 모범사례를 인용하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IV.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모범 사례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한 와양 인형극 보호 실행계획

인도네시아 국립와양사무국(SENA WANGI)과 인도네시아달랑협회(PEPADI)는 2002년 인도네시아 와양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작성했고, 이어서 2005~2007년에 와양 공동체와 함께 인도네시아 와양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실행하였다. 이 사업에는 다양한 형식의 와양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책과 시청각 자료 등 교재를 제작하였다. 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예술대학(ISI) 수라카르타, ISI 요그야카르타, ISI 반둥 등 와양 인형극 학위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이 사업에서 만들어진 교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양식의 와양 인형극 전승을 위한 시범

7) 박성용 본부장, 인터뷰, 자카르타, 2012년 9월 9일.

8) No. 20/2003 인도네시아 국가 교육체계에 관한 법, 인도네시아 관보 No. 78, 2003년.

9) 레디 왈루요 상가(SanggarRediWaluyo), 캄퐁 마카사르, 동부 자카르타. Ki Kamsu Redi Wiguno가 설립.

10) 박성용 본부장,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Inventory of ICH in Korea)",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안으로서의 목록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 논문, 자카르타, 2009년 8월 19일.

사업으로 15개 상가(와양 인형극 전통 학교)를 지원했다.¹¹ 이 시범 사업은 정규 교육(교재 준비)과 비정규 교육(무형문화유산을 가르치는 비정규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이 경우에는 와양 인형극을 전수하는 상가) 간의 협력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본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앙클롱 보호 프로그램

앙클롱음악협회(MMA)와 사옹 앙클롱 우조(Saung Angklung Udjo)는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 앙클롱의 유산등재 신청서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MMA는 도서 형태의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며,¹² 사옹 앙클롱 우조는 앙클롱 문화 보호와 앙클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1,500명의 소속 앙클롱 연주자들과 함께 매일 앙클롱 공연을 열고 있다. MMA는 이 밖에도 앙클롱 학교 교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지도자 훈련).

V. 페칼롱안 바틱박물관과의 협력 하에 진행된 초·중·고등학생, 직업학교 및 공예학교 학생들을 위한 바틱 문화유산 교육과 훈련 개요¹³

‘바틱 시티’라고도 불리는 페칼롱안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주의 자바해 북부 연안에 위치한 소도시다. 바틱(batik)은 페칼롱안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의 생계 수단이기도 하다.

2006년, 바틱박물관 운영자 자히르 위다디(Zahir Widadi)는 페칼롱안의 신임 시장 모하마드 바시르 아마드(Mohamad Basyir Ahmad) 박사에게 학교 현장에서 바틱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대다수 학생들의 관심은 정규 학업 과정에만 쏠려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학업에 열중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텔레비전과 비디오게임에 시간을 빼앗겼다. 이에 아마드 시장은 페칼롱안 시

11) SENA WANGI, “2005~2007 인도네시아 와양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 실시에 관한 보고서(Reports on Execution of Action Plan for Safeguarding of Indonesian Wayang, 2005-2007)”,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와 협력 하에 시행.

12) Obby Wiramihardja, Masyarakat Musik Angklung, CaraBermainAngklung, 자카르타, 2010년, 문화연구개발센터, 문화관광부.

13) 페칼롱안 바틱박물관 연구소, “모범사례 상술(Elaboration of Best Practice)”, 2010년.

에 소재한 230개 학교 전체에서 바틱을 지역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행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다.

바틱박물관은 박물관을 관람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바틱 작업장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은 이후 여러 학교로 확산되었다. 유네스코 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후보에 올랐고¹⁴ 2009년 10월 1일 제4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의 4.COM 15B 결의안에 의해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프로그램의 목표

지금까지 바틱 문화는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주로 구전 및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세대 간에 전승되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학교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외하면 더 이상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바틱 문화를 대대로 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구전 전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바틱 문화를 정규 교육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바틱박물관 운영진은 페칼롱안 시의 초·중·고등학교와 직업학교 및 기술전문학교 교장들과 힘을 합쳐 각 단계별 교육기관의 교과목과 교과과정에 바틱 문화에 관한 교육 모듈을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개발 방법 :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바틱의 교육 및 훈련 모범사례 시행 방법론

가장 먼저 바틱박물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틱 문화의 가치와 전통 수공예품에 대해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법을 교육했다. 관련 교재도 마련되었다. 지도 및 훈련 수준은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에 맞추었다. 박물관 전시실을 활용해 바틱의 이론,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박물관 작업장에서는 손으로 그리거나 찍어내는 전통적인 바틱 수공예품을 만드는 실습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바틱 제조업체들 가운데서 후원자를 찾았으며 시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페칼롱안 시에 소재한 여러 교육기관에 초대장을 배포했다. 마침내 2006년 훈련 프

14)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8조.

로그램이 바틱박물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시되었다.

이후 프로그램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교사들도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바틱 교육 및 훈련을 받기 위해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한편 평가시험도 바틱박물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바틱 교육 및 훈련은 예로부터 내려온 구전적 전승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일부 바틱 제조업체도 이 프로그램에서 확립된 모범을 좇아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틱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이론과 손으로 그리고 짚어 만드는 전통 바틱 수공예 실습과정을 '지역 컨텐츠'로서 학교 교과과정에 도입하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바틱 관련 내용을 다른 과목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어학 수업에서 바틱과 관련된 지문을 사용하거나 생물 및 화학 수업에서 바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천연염료를 다루는 식이었다.

프로그램의 평가

바틱박물관에서 실시된 바틱 문화 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2006년에 4,815명, 2007년 12,905명, 2008년에는 5,749명이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 바틱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지도자 훈련을 받은 교사의 수도 2006~2008년까지 각각 1,053명, 1,798명, 925명이었다. 2009년에는 이 수치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 프로그램은 페칼롱안 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바틱 문화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바틱 문화유산을 가르치는 페칼롱안 지역 학교는 2005~2006년만 해도 겨우 한 곳에 불과했으나 2006~2007년에 100개교, 2007~2008년 194개교, 2008~2009년에는 230개교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금은 페칼롱안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바틱 문화유산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문화적 가치 이론과 실습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의 교육기관에 속한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9년 1월 30일과 2월 13~14일 두 차례에 걸쳐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를 종합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터뷰에 응한 모든 응답자가 이 프로그램에 호감을 표했다. 한 초등학생은 바틱 훈련을 매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모든 응답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바틱 문화유산과 전통 수공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 학교장들과 교사들은 이 프로그램이 향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

을 제공하고 집중력과 인내력, 자신감, 협동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느꼈다.

-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바틱 디자인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 일부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하나의 바틱 작품을 함께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협동방식을 익혔다(즉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배웠다).
- 이 프로그램은 페칼롱안 뿐만 아니라 바탕, 페말랑, 테갈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 바틱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 학생들은 직접 만든 바틱을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을 본 가족과 지인들은 학생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일반대중 사이에서도 바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지도자와 교사, 학생들 사이에서는 만족감과 열정의 기운이 두드러졌다. 참가자 전원이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비정규 교육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규 교육을 실시한 뛰어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여타 무형문화유산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사만 춤 보호 실행계획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에 등재된 전통 춤 사만의 보호 계획에는 사만 문화유산의 전통적인 전승 장소(mersah, 메르사)의 강화를 비롯해 사만 교재(책과 시청각 자료) 준비, 학교 교과과정에 사만 관련 내용 삽입 등이 포함된다. 이 계획은 2010년에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이다.

파푸아족의 다기능 편물 가방 수공예 노켄

2011년 긴급보호목록 후보에 오른 전통 가방 노켄(noken)에 대한 보호 실행 계획은 포스터와 기타 교재 마련, 전통 노켄 공예가 모임 활성화, 학교 교과과정에 노켄 관련 내용 삽입 등을 포함한다.

V. 결론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형 문화유산을 학교나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적절하게 편입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비정규 교육도 전통 학교와 장인에 대한 지원, 관련 교재 마련,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와양, 앙클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바틱 문화유산 교육 및 훈련, 사만과 노켄의 보호 실행계획 등 인도네시아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승 모범 사례들은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입증해준다.